

보도시점 2023. 12. 27.(수) 06:00
< 12.27.(수) 석간 >

배포 2023. 12. 26.(화)

K-조선 초격차 기술 얼라이언스(Tech Alliance) 가동

- 내년 1/4분기 내, K-조선 초격차 기술개발 청사진 마련
- 민관 합동으로 15개 기관 참여, K-조선 기술혁신 선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조선해양 플랜트협회와 공동으로 12월 27일(수)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K-조선 초격차 기술 얼라이언스(Tech Alliance)’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지난 11월 발표한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후속 조치로 산업부, 조선사, 기자재 업체, 연구기관, 학계 등 15개 기관의 최고 기술 책임자(CTO)로 구성하며 조선해양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미래 친환경선박, ②디지털 전환, ③스마트 자율운항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으로 운영되며 국내 최고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한다.

우선 미래 조선해양산업에 필수적인 기술(choke point)을 식별하고, 기술별 수준 진단과 구체적인 기술 확보방안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해외 우수 연구소·대학 등과의 국제협력, 과감한 기술 투자, 생태계 밸류체인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정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우리 조선산업은 민관이 협심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내었다고 평가하였다. 올해 조선업은 210억 불 이상 수출을 달성할 전망이며, 수주잔량도 4,000만CGT를 초과하며 3~4년 치 일감을 확보하였고, 글로벌 고부가선박의 60% 이상을 수주(1~11월)하는 등 양적·질적 개선이 두드러졌다. 또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 제도 개선 등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며 올해 예상 부족 인력 약 14,000여 명을 3분기 까지 조기 충원하였다. 이어 참석자들은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반복되는 인력수급 불안 등 대응을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확보가 관건이라며, 기술 얼라이언스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경쟁국의 가파른 기술 추격, 도전적인 환경규제 충족을 위한 친환경 기술 요구, 구조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한 생산공정 디지털 전환 등 조선해양산업의 대내외적인 요구에 대해 개방형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고려해 돌파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도출된 전략들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담당자	사무관	홍길표 (044-203-4334)



참고

K-조선 Tech 얼라이언스 구성

□ K-조선 Tech 얼라이언스 거버넌스

